

오피니언

光日春秋

문국현



「현대 사회에서 경영자의 책임은 기업 그 자체와 경영자의 공적 지위, 경영자의 성공과 사회적 위상을 위해서 중요하다.

통신회사였던 월드컴에서 마저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들로 엔론과 월드컴은 파산되어 주인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회계 법인이었던 세계 3대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공중해체 되어 버렸고, 관련 금융기

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4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윤리 경영 책임과 기업 회계장부의 성실성에 대한 인증 책임은 2001년 이후 대기업과 상장기업을 모두에서 채택 실시돼왔다.

특히 지난 90년대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 관련 부정축재 환수과정과 IMF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공적 자금 160조원을 투입하여 금융기관들을 구제하고,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워크아웃을 도울 때,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윤리경영과 회계장부의 성실 작성에 대한 서약을 받았다.

더구나 2002년 대선과정에서 차떼기

등도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경으로까지 확대되어 온 것이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

참으로 허망스럽고 애석한 일이다. 공적자금 160조원을 투입하고, 전국민이 금모으기를 하며 사기를 뜯어주고, 낙인 찍혀가면서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요를 창출해주고, 매년 수조원 이상의 한평생기금 운영과 관련해 국가가 부담하면서까지 수출이 잘되도록 도와준 대기업들이 이토록 기대를 저버린 것에 국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문득 2001년 GE의 미국 본사를 방문했던 기억이 난다.

GE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까지는, 잭 웰치 회장의 취임 초기 3년 동안 과감하게 추진하였던 윤리혁신운동의 성과와 그 이후 17년간 일관되게 추진하였던 식스시그마 운동과 변화가속화 운동의 성과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일방적 면허부여 불과한 서약이나 협약에 남발하여 사태를 악화시켜온 관행과 문화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법의 권위를 살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기업인들만을 지원하여 공정한 사회·신뢰 사회·기업인들이 진정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우리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한다.

<유원익법리 대표이사 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한미 FTA 공청회 다시 무산돼선 안된다

정부가 내달 5일로 예정된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본격 협상개시 이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청회를 다시 개최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 2월2일 개최하려던 한미 FTA 공청회는 관련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일방적 면허부여 불과한 서약이나 협약에 남발하여 사태를 악화시켜온 관행과 문화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법은 권위를 살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기업인들만을 지원하여 공정한 사회·신뢰 사회·기업인들이 진정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우리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한다.

戰警부모들이 과격시위 막는 기막힌 현실

아들을 전·의경에 보낸 부모들이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과격시위현장에서 자식들이 다치는 것을 보다못해 직접 시위현장으로 달려간 일은 집단폭력에 무기력한 우리 공권력의 기막힌 현실을 말해준다.

화투쟁'의 불가피한 과정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가 다치는 것을 보다못해 직접 시위현장으로 달려간 일은 집단폭력에 무기력한 우리 공권력의 기막힌 현실을 말해준다.

민노총 사람들은 전의경 부모들이 경찰에 의해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모들의 모임체인 '전의경 부모들의 모임'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 모임은 시위현장에서 다치는 아들을 안타까워 자발적으로 만들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당한 권력이 지배하던 시절, 공권력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

경찰병원 병상이 누워있는 시위 부상 전·의경의 숫자는 2002년 255명 이던 것이 2003년 681명, 2004년 586명, 2005년 747명으로 늘고있다. 오늘 벌 어질지도 모를 광택 미군기지 설치 반대 대규모시위에서도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예상되고있다.

그 결과 배려와 인간관계를 우선시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통한 지원에 중점을 둔 '간디형 리더십'을 가장 선호했다. 또 우리 기업의 CEO가 가져야 할 소망으로 '배려, 신뢰 등 인간적인 요소'를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Advertisement for 'The Kwangju Ilbo' with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details.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식 등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을 겪으며, 우리 국민은 우리 기업과 우리 사회가 크게 변했을 것이라고 이제는 정직해졌고, 성실해졌으리라고, 굳게 믿게 됐다.

그러나 작금의 검찰 발표나 희망포럼·참여연대 등 반부패 시민사회단체들의 발표에 의하면, 일부 대기업 집단에서는 재산 빼돌리기·각종 비리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어 왔고, 이에 따른 회계장부의 조작

관이었다던 씨티그룹은 회계부정에 연루된 혐의로 수조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으며, 월드컴의 최고 경영진에선 징역 25년이 선고되었고, 엔론의 책임자에게 무려 160년의 징역이 구형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던 기업들의 불법과 비리에 놀란 미국인들은 미의회를 통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업 부패방지법을 2002년 제정·실시하게 되었으며, 기업 경영진이 기업회계 장부의 정확성을 보증케하고, 잘못이 있으면 CEO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2004년에는 조직의 범죄에 대한 연방 관할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윤리적 기업

억이었다. 손자 손녀 코 눈물 닦아내기에 날마다 마를 날이 없던 할머니의 흰 수세치맛 자락이었다.

충충시하에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항상 바쁘게 팔링 바람 일구던 어머니의 치맛 자락이었다.

이런 정다운 할머니와 어머니의 치맛 자락은 아날 지라도 현대의 어머니들은 나름대로 마음의 치맛 자락을 간직하고 있다.

학교 처음 입학하던 날! 입학하는 아이보다 더 설레어 하는 어머니 마음의 치맛자락!

이것이 소풍가는 날! 자신이 소풍가는 날 새벽부터 정성들여 도시락을 준

치맛자락의 추억

돈 몇백 원을 아껴려고 만원버스에 싹 첫 고생을 하시면서도 자식들의 공작함은 싫어 하셨다. 맛있는 것은 자식들에게 내어 놓으며 '난 배부르다'라 하시며 살짝 밀어 주셨던 분이시다.

비하는 어머니 마음의 치맛자락! 운동회 하던 날! 조금 뒤쳐져 달려오는 아이와 마음이 급한 나머지 골인 지점까지 함께 뛰어 주던 어머니 마음의 치맛자락!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있어서 산과 같은 존재였다. 늘 갈싸주고 웃음이 버터주는 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받아 주며 아끼없이 주는 나무들로 꽉 찬 산.

친구와 싸우고 울고 들어오는 아이를 아무 말 없이 꼭 안아 주며 엄마는 언제나 아이의 편임을 생각하게 해주는 어머니 마음의 치맛자락!

그러나 현대의 어머니들은 산과 같은 존재의 어머니 보다는 공기와 같이 늘 함께 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모든 어머니들은 아니지만 가끔 지나치게 자녀 교육에 열정이 많은 어머니들을 보면 한나. 도가 지나친 어머니들의 교육 참여로 인하여 치맛바람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예전의 어머니들이 산처럼 언제나 갈싸주고 무슨 일든 받아 주는 어머니였다면 현대의 어머니는 친구처럼 눈높이를 맞추며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며 힘이 되어서 자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함께 하는 어머니가 된 것이다.

예전의 우리 생활 속에서는 치맛바람이 아닌 정답과 그러한 치맛자락의 추

아닌 정답과 그러한 치맛자락의 추

젊은이들 소비지향적 태도 반성해야

국내에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해외 유명 상품, 이른바 '명품'을 달고 돈을 벌릴 수 있는 '명품 전당포'가 성황이라는 것이다.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명품을 사기위해 과도한 지출을 하다보니 신용카드나 대출 등으로 빚을 지게 되고 이를 갚기 위해 결국 빚으로 산 명품을 전당포에 팔고 돈을 급전, 되갚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런 전당포

가 관심을 끌고 있다. 문제는 하루에도 전당포를 찾는 사람들이 수십명이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다는데 이 점을 감안하면 젊은이들의 소비지향적 태도에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최근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지금 경제적으로 불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조사 결과를 접했는데 젊은이들의 소비지향적 태도에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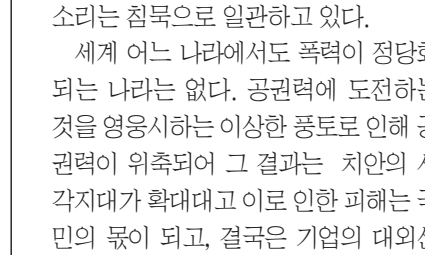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기고



박병철

기고



고호석

법과의 약속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 이웃 생각하는 에티켓 필요

젊은이들 소비지향적 태도 반성해야

치맛자락의 추억

기고

하고 공권력에 대한 항의 방문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보다는 이들의 문제가 진정무엇인가 핵심부터 짚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은 경찰이다. 지난 2002년도 부평 대우자동차와 광주대우캐리어 노사분규, 광주하남공단 화물연대 집회, 순천 현대 하이스코 사태에 대처한 경찰에게 남은 것은 젊은 국민들의 상처, 일선 지휘관들의 비애뿐이다.

법은 국민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국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경찰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

어 법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은 경찰이다.

법은 국민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국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경찰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

어 법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은 경찰이다.

법은 국민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국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경찰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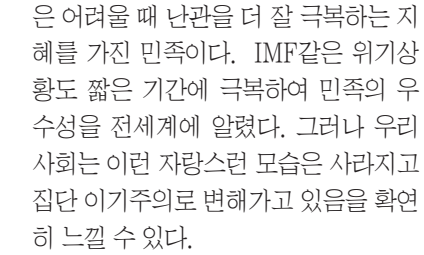
어 법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은 경찰이다.

기고



박병철

기고



고호석

법과의 약속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 이웃 생각하는 에티켓 필요

젊은이들 소비지향적 태도 반성해야

치맛자락의 추억

기고

하고 공권력에 대한 항의 방문등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보다는 이들의 문제가 진정무엇인가 핵심부터 짚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법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은 경찰이다. 지난 2002년도 부평 대우자동차와 광주대우캐리어 노사분규, 광주하남공단 화물연대 집회, 순천 현대 하이스코 사태에 대처한 경찰에게 남은 것은 젊은 국민들의 상처, 일선 지휘관들의 비애뿐이다.

법은 국민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국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경찰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

어 법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은 경찰이다.

법은 국민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국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경찰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

어 법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은 경찰이다.

법은 국민을 규제하는 수단이라 국민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경찰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

어 법 집행하는 최일선 기관은 경찰이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 지급합니다.